

천혜절경 피오르드 탐방
러시아 북유럽 6국 12일
 6/19, 7/3, 7/10, 7/31 출발 **3,599,000원부터**
 하안풍차투어 문의: 02-777-6566

“오리지널 히어로 6명과 이별, 손수건 꼭 챙기시길...”

‘어벤져스:엔드게임’ 제작진·배우들 방한

‘아이언맨’ 로다주 “10년 동안 영광이었다”
 ‘캡틴마블’ 라슨 “나 자신이 강해진걸 느껴”
 ‘호크아이’ 러너 “마블영화에 자부심 크다”
 파이거 대표 “앞으로 10년은 새 히어로와”

“‘엔드게임’은 마블 시리즈 22편의 집대성입니다. 티슈 챙기길 권하고 싶어요.”

2008년 4월 ‘아이언맨’으로 시작해 가장 최근인 3월 ‘캡틴 마블’까지 총 21편의 시리즈를 통해 환상적인 영웅의 세계관, 즉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를 완성한 마블스튜디오의 설계자 케빈 파이거 대표는 1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마블의 22번째 작품인 ‘어벤져스:엔드게임’(‘엔드게임’)의 24일 개봉에 앞서 이날 아시아 11개국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연 마블 주역들은 여러 번 “집대성”, “피날레”, “열정”, “팬”이라는 말을 꺼냈다. 마블 세계관의 구축에 “한국 관객의 힘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헛수로 12년간 전 세계를 호령한 마블스튜디오의 시리즈는 이번 ‘엔드게임’으로 막을 내린다. 물론 이대로 끝은 아니다. 마블은 ‘엔드게임’을 통해 오리지널 히어로 캐릭터의 일부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영웅을 내세운 시리즈로 또 다른 시대를 시작한다.

2008~2019년 마블 22편 및 국내 흥행 순위

개봉년도	제목	국내 관객수
2008년	아이언맨	429만816명
	인크레더블: 헬크	99만1417명
2010년	아이언맨2	442만5003명
	토르: 천둥의 신	169만4562명
2011년	퍼스트 어벤저	51만4579명
	어벤져스	707만4867명
2012년	아이언맨3	900만1331명
	토르: 다크월드	303만9889명
2013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	396만3251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31만1190명
2014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049만4499명
	엔트맨	284만1795명
2015년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867만7249명
	닥터 스트레인지	544만6239명
2016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2	273만5721명
	스파이더맨: 홈커밍	725만8678명
2017년	토르: 라그나로크	485만3778명
	블랙팬서	539만9227명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1121만2710명
	엔트맨과 와스프	544만8134명
2019년	캡틴 마블	569만6341명
	어벤져스: 엔드게임	?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4월15일 현재



마블 히어로 시리즈의 주역인 브리 라슨·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제레미 러너(왼쪽부터)가 마블스튜디오의 22번째 작품 ‘어벤져스:엔드게임’에 대해 “마블의 엔딩이자 피날레”라며 “지난 10년처럼 앞으로 또 새로운 히어로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오리지널 히어로 6명 마침표’

이날 기자회견은 케빈 파이거와 조·안소니 루소 형제 감독이 참여한 1부와 주연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브리 라슨, 제레미 러너가 나선 2부로 나눠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선 내년부터 본격 시작할 ‘마블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몇 번 나왔지만 이들은 굳게 입을 닫았다. 심지어 이날 참석한 배우들 가운데 ‘엔드게임’을 본 사람도 없을 정도로 스포일러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

다만 몇 가지 힌트는 나왔다. 조 루소 감독은 “마블의 엔딩이자 피날레인 ‘엔드게임’을 통해 오리지널 히어로 6명의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는다”고 예고했다. 때문에 ‘엔드게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마도 ‘눈물’이 될 전망이다. 공개된 예고편 분위기 역시 장엄하고 엄숙했다. 어떤 캐릭터가 이별을 고했는지 팬들 사이에서 이미 활발한 전망이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빈 파이거는 “우리는 늘 팬을 먼저 생각하고, 10년간 오직 ‘엔드게임’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0년처럼 앞으로도 새로운 히어로로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마블의 시작’ 로다주 “10년간 프로답게 다 했다”

이번 내한에는 ‘엔드게임’에 등장하는 32명의 역대 마블 캐릭터 가운데 주인공 3인이 참석했다. 마블 세계관을 시작하고 성공을 이끈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단연 시선을 끌었다. 그는 영화에서 막 튀어나온 듯 아이언맨을 연상케 하는 춤과 동작을 연신 선보여 웃음을 선사했다. 답변에선 재치도 넘쳤다. 사회자가 ‘캡틴 마블’ 브리 라슨이 입을 망토 스타일 의상을 언급하자 “발렌티노 거다”고 말해 또 다시 웃음을 터트리게 했다.

‘엔드게임’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에게도 의미가 각별하다. “10년간 프로답게 모든 걸 다 했다”는 그는 “처음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나를 위해서 ‘아이언맨’에 나왔지만 10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세계적인 문화현상과 순간을 직접 겪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했다.

비록 영화이지만 슈퍼파워를 가진 히어로의 삶을 살아온 이들 배우에게 마블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브리 라슨은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캡틴 마블을 위해 9개월간 훈련을 받으면서 생각도, 음성도 강해졌다”며 “캡틴 마블은 여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상징하는 캐릭터이지만 그건 꼭 여성에게만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호크 아이’ 제레미 러너는 “세상에는 여러 분열이 있지만 마블영화는 세계를 아우르는 여성으로 가치가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물론 누가 남고 떠나는데 대해선 다들 입을 다물었다. 다만 여성 히어로 시리즈가 강화될 것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함께 참석한 트린 트랜 프로듀서는 “마블은 여성 히어로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금도 엄청난 분들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마블은 스칼렛 요한슨을 내세운 솔로 무비 ‘블랙 위도우’와 앤젤리나 졸리의 출연이 유력한 ‘더 이터널스’를 기획하고 있다.

● ‘마블영화의 핵심, 공동체의 가치’

‘엔드게임’은 지난해 4월 개봉한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와 동시 촬영해 순차 개봉하는 두 번째 이야기다. ‘어벤져스’ 전체 시리즈로는 네 번째 작품. 지난 ‘인피니티 워’는 히어로들이 악당 타노스에 밀려 전부 먼지처럼 사라진 절망로 관객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에 대해 안소니 루소 감독은 “당시 관객 반응은 우리에게도 큰 감명”이라며 “‘엔드게임’의 마지막 장면 편집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실에선 악당이 이기는 경우가 많고, 그 고통을 우리가 견뎌야 할 때가 많지 않느냐”고 되물기도 했다. 악당의 승리 서사가 관객에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실 마블 시리즈는 단순히 오락영화를 넘어 인류애를 아우르고 때때로 사회적인 문제를 담는 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견고해진 건 2016년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부터다. 조 루소와 안소니 루소 감독은 이 시리즈를 통해 실력을 입증하며 마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 연출까지 맡았다.

이 같은 ‘마블의 철학’에 관한 질문을 받은 조 루소는 “현재 시대적으로 개인주의와 커뮤니티 중심이 있고, 또한 국수주의로 가는 나라도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분열의 시대에 마블이 내건 가치가 바로 ‘공동체’라는 설명이다. 감독은 “마블은 아주 다른 별개의 캐릭터들이 모여 공공의 적을 상대하는 메시지로 전 세계의 공감대를 얻는다”며 “예술이 최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대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블의 주역들은 15일 오후 7시30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4000여 팬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벌였다. 13일 내한한 이들은 각자 취향대로 서울 광장시장을 찾아 ‘마약김밥’을 맛보고(브리 라슨), 경북곡 벚꽃놀이 뒤 소주를 마시고(제레미 러너), 호텔에서 춤삼매경에 빠진 영상을 촬영해 SNS로 공유하는(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등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김승우·김남주, 강원 이재민에 기부

배우 김승우·김남주 부부가 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또 이들의 두 자녀도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은 15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들의 두 자녀(1남1녀)는 평소 모은 용돈을 이날 성금으로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송혜교, 中 제작사 짜둥영화와 계약

배우 송혜교가 왕자웨이(왕가위) 감독의 영화제작사와 계약한 사실이 15일 뒤늦게 알려졌다. 송혜교는 14일 열린 홍콩 금상장 영화상 시상식에 작품상 시상자로 참석해 중국 영화제작사 짜둥영화와 계약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더 많은 감독, 배우와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혜교는 2013년 왕자웨이 감독의 ‘일대중사’에 출연했다.

최민호·장동우, 나란히 입대

그들 사이인의 최민호(28)와 인피니티의 장동우(29)가 15일 나란히 입대했다. 최민호는 경북 포항 오천읍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장동우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각각 입소해 군 복무를 시작했다. 최민호는 SNS에 손 편지를 공개하며 “건강하게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장동우도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조병규, 라디오서 김보라와 애정 과시

연기자 김보라와 조병규가 자신들의 연애 사실을 솔직히 드러냈다. 조병규는 15일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 출연해 김보라가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에 출연 중이라며 “보고 싶어서 자주 간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김보라와 조병규는 2015년 KBS 2TV 드라마 ‘후아유-학교2015’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S KY 캐슬’을 거쳐 사랑을 싹틔웠다.

문소리, 야외 예능 ‘가시나들’ 출연

배우 문소리가 첫 야외 예능에 도전한다. MBC가 봄 개편을 맞아 5월 파일럿으로 선보이는 ‘가시나들’을 통해서다. ‘가시나들’은 2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의 예능프로그램 버전으로, 한글 공부를 매개로 할머니와 연예인이 소통하는 내용이다. 문소리는 할머니들의 한글 선생님이자 연예인의 인생 멘토로 등장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